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¹⁾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는 산업 활동의 원동력이며, 국민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필수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공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존 에너지 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원 빈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육성 및 제조업 중심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형 대규모 공급 중심으로 석탄과 원전 위주의 전원정책은 중요하게 다뤄진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또한 수요관리가 미흡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저조하며, 에너지의 친환경성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 원전부지에 대한 갈등 및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발생 등 에너지정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에너지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에는 일본의 절반 수준, 독일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사용량은 오늘날 이 두 국가를 넘어섰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일본과 독일에 비해 낮았던 우리나라의 일인당 전력소비량도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들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에너지자급률이 3%(원자력 포함 시 19%)에 그치고 있고, 에너지사용량 대비 순수입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전문조직의 설치를 비롯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의 R&D사업 추진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기술 보유국들과 활발한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소득증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가격으로 인해 전력소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낮은 경제성과 기술적 불확실성 등으로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1) 본고는 이투데이 <조용성의 Eco&경제> 칼럼의 2018년 3월 28일자 원고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점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명분은 있지만 실리가 약한 신재생에너지를 전폭적으로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실리는 있지만 명분이 낮은 원자력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 절약 및 전력수요 관리 그리고 이와 연계된 전기요금의 현실화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화석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영국 왕립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인 월트 패터슨(Walter Patterson)은 저서 *Electricity vs Fire: the Fight for Our Future* (전기 vs. 불: 미래를 위한 투쟁)을 통해,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와 에너지시스템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원하는 미래는 기다린다고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을 화석에너지시대를 넘어서는 시작으로 삼으라(Today could be the day you start thinking beyond the Fire Age).”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이다. 오늘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 “후손에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을 물려주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값싼 전기의 유혹 그리고 화석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